

미얀마어 모어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하다’·‘보다’ 과거 시제 축약형 형태 오류 분석

박윤미* · 원윤희**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
 - 2.1. 발달적 오류와 중간언어의 관점
 - 2.2. 한국어 과거 시제의 형태론·음운론적 특성과 오류 발생 메커니즘
 - 2.3. 미얀마어의 시제·음운 체계와 한국어 과거 시제 오류의 전이 메커니즘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 3.2. 분석 기준 및 절차
 - 3.3. 분석 항목의 세부 기준
 - 3.4.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방안
4. 오류 분석 결과
 - 4.1. 오류 유형별 분석
 - 4.2. 축약형 오류의 생성 경로와 해석
 - 4.3. ‘했-/뵈’ 계열 오류의 발달적 지위와 중간언어 성격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얀마어 모어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과거 시제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특히 ‘하다’와 ‘보다’의 축약형 과거 시제 환경에서 나타나는 ‘했-’ 및 ‘뵈-’ 계열 오류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부산 소

* 제1저자: 부산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박사 수료(onlybsb486@naver.com)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독일학과 교수(wonyunhee@jejunu.ac.kr)

재 Y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초급 1급 과정에서 수집된 교실 쓰기 산출물 32편이며, 연구 대상은 동일한 교재와 수업 조건 아래 학습한 미얀마 국적 학습자 8명이다. 분석 결과 전체 과거 시제 오류 53건 가운데 축약형 오류가 2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내부에서 '했-'과 '봤-' 계열 비표준형이 중간·기말 평가, 단원 평가, 수업 활동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오류는 비교적 높은 쓰기 성취 수준을 보인 학습자에게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를 단순한 철자 실수로 보기보다 발음 단서 기반 표기 전략, 형태소 경계 인식의 불안정, 축약 규칙의 불완전한 내면화가 결합된 발달적 오류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동일 학습자 내부에서 표준형과 오류형이 함께 나타나는 혼용 양상은 관련 규칙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실제 교실 자료에 근거해 미얀마어권 학습자의 과거 시제 축약형 오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초급 단계 한국어 시제 교육과 고빈도 동사 활용 지도에 필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요어: 미얀마어 모어 학습자, 과거 시제 오류, 축약형, 중간언어, 한국어 교육

1. 머리말

한국어의 시제 체계는 사건의 시간적 배열을 조직하고 담화를 전개하는 핵심 문법 범주로, 초급 교육 단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 중 하나이다. 특히 과거 시제는 일상적 서술, 경험 회상, 내러티브 구성 등 다양한 담화 유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므로, 산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자의 전반적 의사소통 능력과 문장 이해에 직접적인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초급 학습자들이 과거 시제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발음 기반 철자화, 축약·불규칙 활용에 대한 오인, 형태소 경계 인식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다양한 오류를 반복적으로 산출하는 양상이 다수의 연구와 교육 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오류는 단순한 부주의나 학습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형성되는 중간언어(interlanguage)의 발달적 특성과 목표어 구조의 복잡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¹⁾

이와 같은 과거 시제 오류 양상은 학습자의 모어 배경에 따라 그 형태와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국내 한국어 학습자 구성의 변화와 함께 미얀마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자격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자 가운데 유학생(D-2)은 1,777명, 일반연수생(D-4)은 2,893명으로, 학업·연수 목적 체류자(D-2+D-4)는 총 4,670명으로 집계되었다.²⁾ 이후 2025년 11월 말 기준에는 동일 범주의 체류자가 9,563명(D-2: 5,430명, D-4: 4,133명)으로 증가하여,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에 가까운 확대를 보였다.³⁾

이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미얀마어 모어 학습자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의 언어적 배경과 습득 특성을 반영한 문법 연구가 현장 중심 연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초급 단계에서 과거 시제는 산출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축약과 음운 변동이 결합된 형태적 복잡성을 지니고 있어, 학습자 오류가 누적되기 쉬운 문법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특정 언어 배경을 지닌 학습자 집단의 과거 시제 오류를 실제 교실 쓰기 자료에 기반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특히 미얀마어 모어 학습자의 과거 시제 축약형 오류를 실제 교실 산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1) Corder, S. P.,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Vol.5, No.1-4, 1967, pp.161~170; Selinker, L.,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Vol.10, No.1-4, 1972, pp.209~231; Dulay, H., Burt, M., & Krashen, S., *Language Tw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150; 원윤희, 「독일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 사례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3~14쪽.

2)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 (검색일: 2026.01.10.).

3)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7/601757/artclView.do> (검색일: 2026.01.10.).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제 교실에서 수집된 학습자 쓰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2025년 봄·여름학기 부산 소재 Y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초급 1급 과정에서 수집된 학습자 쓰기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거 시제 표현과 관련하여 표준형 ‘했다/했습니다’가 ‘하였다/하였습니다’로, ‘봤다/봤습니다’가 ‘봬다/봬습니다’로 표기되는 비표준형 오류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오류는 일부 학습자에게서 단일 과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과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산출되었으며, 동일한 교육과정과 과제 조건 하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회적 실수라기보다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체계 내에서 일정 수준 규칙화된 산출 양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해당 오류가 한국어 과거 시제의 축약과 음운 변동이 결합된 고빈도 동사 ‘하다’와 ‘보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형태소 경계 인식과 발음-표기 대응 처리 과정에서의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했-/봬-’ 유형 오류는 외형적으로는 철자 오류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발음 단서에 기반한 표기 전략과 축약 규칙에 대한 불완전한 내면화가 결합된 산출 양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는 단순한 표기 실수뿐만 아니라,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오류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초급 단계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과거 시제 축약형 지도가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안마어 모어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교실 쓰기 자료를 중심으로 ‘했-/봬-’ 유형 과거 시제 오류의 산출 양상을 분석하고, 해당 오류가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초급 단계 한국어 시제 교육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교수·학습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실제 교실 자료를 바탕으로 오류의 생성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오류 유형 분류 중심 연구를 보완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분석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미안마어 모어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에서 ‘했-’ 및 ‘봬-’ 유형 과거 시제 오류가 어떠한 산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이러한 오류가 한국어 과거 시제의 형태·음운적 특성과 학습자의 발음-표기 처리 전략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셋째,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급 한국어 시제 교육, 특히 고빈도 동사의 과거형 지도에 대한 교수·학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했-/뵈-' 계열 과거 시제 오류를 단순한 철자 실수가 아닌,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과정, 입력 처리 방식, 그리고 언어 간 구조적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제2언어 습득 이론에서의 발달적 오류 개념을 검토하고, 한국어 과거 시제가 지니는 형태·음운적 특성과 미안마어의 시제·음운·문자 체계가 갖는 구조적 차이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발달적 오류와 중간언어의 관점

제2언어 학습자의 오류는 목표어 규범에서 벗어난 결합적 산출이 아니라, 학습자가 목표어의 규칙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산물로 이해되어 왔다.⁴⁾ 학습자는 목표어의 형태·음운·통사 규칙을 즉각적으로 습득하지 않으며, 모어의 처리 방식과 제한적으로 내면화된 목표어 규칙,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 구성한 가설적 규칙이 결합된 중간언어 체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산출되는 오류는 학습자의 언어 체계가 무작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성에 따라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간주된다.

Selinker는 중간언어를 독립적인 언어 체계로 규정하면서, 특정 오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화석화(fossilization)의 초기 단계로 설명하였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급 단계에서 동일한 과거 시제 형태가 반복적

4) Corder, 앞의 글, 161~170쪽.

5) Selinker, 앞의 글, 209~231쪽.

으로 비표준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학습자의 중간언어 체계 내에서 규칙화된 산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형태적 축약과 음운 변동이 결합된 환경에서는 목표어 규칙의 투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의 중간언어 규칙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원윤희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중간언어 발달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발음과 문자 간 대응 관계가 불투명한 환경에서 학습자가 청각적 단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처리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⁶⁾ 특히 표기 규칙이 발음 실현과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한국어의 특성은, 학습자가 음성 정보를 문자로 직접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표준적 표기를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 부족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처리 양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시제 축약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표준 표기를 발달적 오류로 해석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오류가 반복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형태 규칙의 습득이 단순한 입력 노출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특정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내면화된다는 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⁷⁾ 축약과 경음화가 결합된 과거 시제 형태는 발음과 표기 간 괴리가 커, 학습자의 주의를 형태소 결합 구조보다 음성적 단서에 집중되기 쉬운 환경을 형성한다. 그 결과 형태소 단위의 분절과 규칙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비표준형이 반복적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커진다.⁸⁾

이러한 관점에서 ‘했-/봘-’ 유형 오류는 목표어 규범의 단순 위반이 아니라, 입력 처리와 규칙화가 결합된 중간언어 발달 과정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6) 원윤희, 앞의 글, 13~14쪽.

7) Schmidt, R., "The Role of Consciousnes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Vol.11, No.2, 1990, pp.129~158.

8) Schmidt, 앞의 글, 129~158쪽.

2.2. 한국어 과거 시제의 형태론·음운론적 특성과 오류 발생 메커니즘

한국어의 과거 시제는 동사 어간과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였-'이 결합하고, 종결어미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표면형은 형태론적 축약, 음운 변동, 된소리되기 등의 규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하다 → 했다', '보다 → 봤다'와 같은 고빈도 동사의 축약은 형태적 불규칙처럼 보일 수 있으며, 공손형에서는 '했습니다 → [헐쌌니다]', '봤습니다 → [봔쌌니다]'로 발음되어 표기와의 불일치가 두드러진다.

국립국어원의 규범에 따르면 이러한 발음은 표준 규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실현형이지만, 초급 학습자는 음운 단서를 문자 표기로 직접 연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된소리되기 + 축약 + 종성 표기 불일치'가 결합된 형태에서는 오류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음운 규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규범적 실현형과 학습자의 지각·처리 방식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⁹⁾ 이와 관련하여, 고빈도 동사의 축약형은 초급 학습자에게 '규칙이 없는 예외처럼' 지각되기 쉬우며, 발음과 표기 간 괴리가 학습자의 철자 오류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¹⁰⁾

또한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를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연구에서는, 된소리되거나 자음군 단순화와 같은 음운 변동이 표준 정서법과 일치하지 않는 표기로 이어지는 양상이 체계적으로 관찰된다고 지적한다.¹¹⁾ 이러한 논의는 발음-표기 불일치 환경에서 학습자가 청각적으로 지각한 실현형을 철자에 직접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과거 시제 축약형 오류를 음운 기반 철자화의 한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9) 국립국어원, 『표준 발음법 해설서』, 국립국어원, 2017; 국립국어원, 『표준 한국어 문법론』, 국립국어원, 2021. 표준 발음법 규정 제24항·제25항 관련 설명 참고.

10) 이정희,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오류 연구」, 『이중언어학』 18, 이중언어학회, 2001, 259~278쪽.

11) 허용,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201~232쪽.

한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불규칙 용언을 빈도와 규칙성에 따라 위계화 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하다’, ‘보다’와 같은 고빈도 불규칙·축약 동사가 초기 교육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 왔다.¹²⁾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모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시제 선어말어미와 공손법 표시가 결합된 환경에서 오류가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한국어의 시제·경어 체계가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부담을 형성함을 시사한다.¹³⁾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설명 가능하다. 고빈도 어형은 전체 어형 단위 저장과 형태소 분해 처리가 혼재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만약 ‘했다’, ‘봤다’와 같은 축약형이 정신 어휘에서 독립 항목으로 안정적으로 저장되지 못하고, 동시에 형태소 결합 규칙 또한 충분히 자동화되지 않았다면, 학습자는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청각적 실현형에 의존하여 표기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발음 단서가 문자화되어 ‘했다’, ‘봤다’와 같은 비표준형이 산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¹⁴⁾

이와 같이 한국어 과거 시제는 형태적 복잡성, 음운 변동, 발음-표기 불일치가 동시에 작용하는 문법 항목으로서, 초급 학습자에게 높은 인지적 부담을 요구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이 발음 기반 표기 전략과 결합될 경우, 오류가 반복적으로 산출될 가능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 미얀마어의 시제·음운 체계와 한국어 과거 시제 오류의 전이 메커니즘

미얀마어는 굴절적 시제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 분석어(analytic language)로, 시제·상은 동사 어간 변화 없이 문말 표지나 기능어를 통해 실현된다.¹⁵⁾

12) 이혜영·이임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불규칙 용언의 위계화 연구」, 『언어와 문화』 9(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3, 231~251쪽.

13) 신찬양,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및 높임법 사용의 문법적 오류 분석 연구」, 『언어와 언어학』 89,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20, 101~126쪽.

14) 이선진·임우열·김영주,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과거시제선어말어미 결합 용언 처리에 대한 점화 실험 연구」, 『새국어교육』 122, 한국국어교육학회, 2020, 335~378쪽.

15) Jenny, M., & Hnin Tun, S. S., *Burmese: A Comprehensive Grammar*, London: Routledge, 2016, pp.371~431; Rooney, J., “Burmese”, in M. Aronoff (ed.),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400~450.

로 이어질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¹⁸⁾ 시제 개념의 언어 간 차이를 비교한 연구 역시, 시제 표지가 굴절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언어권 학습자가 한국어 시제 형태를 규칙으로 재구성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¹⁹⁾

미얀마어의 문자 체계는 발음과 표기 간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리-글자’ 대응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다.²⁰⁾ 이와 같은 문자 체계적 차이는 미얀마어 모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발음-표기 불일치 원리를 이해하는 데 구조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모국어에서 형성된 ‘소리-글자 일대일 대응’ 기대를 한국어에도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그 결과 축약형과 같이 발음과 표기 간 괴리가 큰 형태를 접할 경우 표준형을 형태론적으로 재구성하기보다 청각적으로 지각한 실험형을 표기에 직접 반영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시제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법 형태소 체계 전반에서 확인된다. 미얀마어 모어 학습자의 구어 자료에서 격조사 누락·대치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보고는, 형태소 기능을 문법적으로 인식하고 분절·배열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자에게 큰 처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²¹⁾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시제 형태소 오류는 개별 문법 항목의 난이도에만 귀속되기보다, 형태·음운 기반 문법 체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취약성의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²⁾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시제 형태소 오류는 개별 문법 항목의 난이도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의 형태·음운 기반 문법 체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성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오류 양상은 특정 항목에 국한된 단

18) 레이레이몬·한승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종성 발음 대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92, 언어과학회, 2020, 51~77쪽.

19) 탄다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시제에 대한 개념 비교 연구」, 『나라사랑』 129, 외솔회, 2020, 498~522쪽.

20) Bradley, D., "Burmese", in G. Thurgood & R. J. LaPolla (eds.), *The Sino-Tibetan Languag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2.

21) 지혜영·김영주,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 나타난 격조사 오류 연구」, 『국어교육 연구』 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3, 341~367쪽.

22) Selinker, 앞의 글, 209~231쪽; Schmidt, 앞의 글, 129~158쪽.

편적 실패라기보다, 언어 간 구조적 비대칭성이 축적되면서 중간언어 체계 내에 고착된 발달적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미얀마어와 한국어의 시제 표현 방식 비교

항목	미얀마어(Burmese)	한국어(Korean)
언어 유형	분석어 (analytic language)	교착어 (agglutinative language)
시제 표현 방식	시상 부사, 조동사, 종결 조사 등 기능어 활용	동사 어간에 과거시제 어미 결합 (-았/었/했-)
동사 형태 변화	없음 (동사 원형 유지)	있음 (동사 어간 + 시제 어미로 굴절 발생)
과거 의미 표현 예	အကဲ မိမိ ။ ဝ နှစ် ။ ။ (나는 말했다.)	나는 말했다. → 말하 + 았 + 다 = 말했다
축약형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하다 → 했다’, ‘보다 → 봤다’ 등)
발음-표기 불일치	없음 (발음과 표기 일치)	존재 (‘했다’ → [헐따] / ‘봤다’ → [발따])

이와 같이 미얀마어와 한국어의 시제·음운 체계는 구조적으로 상이하며, 이 차이는 미얀마어 모어 초급 학습자가 한국어 과거 시제 축약형을 처리·표기하는 과정에서 형태소 경계 인식과 발음-표기 대응 조정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비대칭성이 실제 교실 쓰기 자료에서 ‘했-/봤-’ 계열 오류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급 단계 과거 시제 축약형 지도에서 고려할 교수·학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장은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과정, 오류 판정 기준, 분석 절차, 그리고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과거 시제 오류 유형 도출 과정의 투명성과 분석 결과의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교육 맥락에서 산출된 학습자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한 질적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반복성과 분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학습자의 우연적 산출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오류 양상과 그 내부적 규칙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25년 봄·여름학기 부산 소재 Y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초급 1급 과정에 재학 중인 미얀마 국적 학습자 8명이다. 해당 학습자들은 동일한 교재, 동일한 교수자, 동일한 수업 시간표에 따라 약 15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한국어 학습 기간은 평균 4개월이었다.

분석 자료는 중간·기말 쓰기 평가, 단원별 쓰기 과제, 수업 중 수행한 쓰기 활동을 포함한 총 32편의 교정 전 텍스트로 구성된다. 모든 자료는 교사의 사전 수정이나 피드백이 개입되지 않은 원형 산출물이며, 과거 시제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담화 맥락에서 작성되었다. 연구 자료의 출처와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자료 출처 및 규모

구분	자료 출처	수집 시기	학습자 국적·숙달 단계	자료 형태	수량
1차 자료	부산 소재 Y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초급 1급 수업	2025년 봄·여름학기	미얀마어 모어 초급 학습자 8명	중간·기말 쓰기 과제, 단원 평가, 수업 중 쓰기 활동, 문법 적용 과제	32편

본 연구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목적을 사전에 고지하고, 익명 처리 및 연구 외 목적 사용 금지에 동의한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비록 표본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동일 교육 맥락에서 반복 수집된 교실 자료라는 점에서 오류 유형의 일관성과 반복성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3.2. 분석 기준 및 절차

본 연구의 오류 분석은 표면적 철자 일탈을 단순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시제 형태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형태·음운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표준 과거형 ‘했다/했습니다’, ‘봤다/봤습니다’가 비표준형 ‘했-’, ‘봣-’ 계열로 실현된 사례를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를 과거 시제 축약형 오류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거 시제 축약형 오류란, 목표어 규범상 ‘했-’, ‘봣-’이 실현되어야 할 환경에서 나타나는 비표준형 가운데, 특히 ‘했-’ 및 ‘봣-’ 계열을 중심으로 지칭한다.

오류 판정의 단위는 학습자가 실제로 산출한 어절(공백 기준 토큰)로 설정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표층 산출 형식을 직접 반영하기 위함이며, 형태소 단위 분석 역시 가능하지만 본 연구는 실제 교실 자료의 쓰기 산출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하나의 어절에 복수의 문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중심 오류를 기준으로 주범주 코드를 1개 부여하고, 오류 생성 경로나 문맥적 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보조 코드를 병기하였다. 또한 동일 문서 안에서 동일 오류형이 단순 반복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집계하되, 서로 다른 문장이나 문맥에서 재출현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하여, 단순 실수보다는 반복성과 규칙성을 지닌 산출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오류 분류 체계는 주범주-보조 코드 구조로 설계하였다. 형태적 주범주는 표준 과거형이 실현되어야 할 환경에서 나타난 비표준 표면형을 기술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범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형 ‘했-’이 실현되어야 할 환경에서 나타난 ‘했-’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변이형(예: ‘했-’)은 동일 계열로 묶어 HAT으로 표지하였다. 또한 표준형 ‘봣-’이 실현되어야 할 환경에서 나타난 ‘봣-’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변이형(예: ‘봣-’)은 동일 계열로 묶어 BOT으로 표지하였다. 여기서 HAT과 BOT은 오류의 인지적 원인을 직접 판

정하기 위한 범주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형태 변이를 기술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주범주이다. 한편 발음 단서가 철자에 직접 반영된 경우는 발음 반영 표기(PHON), 축약 규칙이 부분적으로만 실현된 경우는 축약 규칙의 불완전 실현(SFX), 시간 표현과 시제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는 시제 결합 오류(SYN), 조사 누락·대치가 동반된 경우는 조사 오류(CASE)로 병기하여, 개별 오류가 지니는 형태·음운·통사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PHON, SFX, SYN, CASE는 주범주와 독립된 보조 지표로 적용하였다. 각 코드의 범주와 대표 예시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과거 시제 오류 분류 기준 및 코드 체계²³⁾

코드	상위 범주	간단 정의	예
HAT	형태적(주)	표준형 '했-'이 실현되어야 할 환경에서 나타난 '했-', '하-' 등 계열의 비표준 표기	했습니다
BOT	형태적(주)	표준형 '봤-'이 실현되어야 할 환경에서 나타난 '봤-', '봣-' 등 계열의 비표준 표기	봤어요
PHON	음운(보조)	발음 기반 철자화	했습니다
SFX	형태(보조)	축약 불완전 실현	했습니다
SYN	통사(보조)	시제 불일치	어제 가요
CASE	통사(보조)	조사 오류	학교 예

또한 비표준 철자 환경에서는 자동 형태소 분석기가 오류 분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원자료를 직접 판독하는 직접 코딩(direct coding)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하였다. 필요할 경우 자동 분석 도구는 보조적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였으며, 최종 오류 판정은 원자료의 표층형, 문맥 정보, 형태·음운적 규칙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23) 본 표는 과거 시제 오류를 형태적 대응 관계에 따라 설정한 주범주(HAT, BOT)와, 개별 오류의 생성 경로 및 실현 양상을 해석하기 위한 보조 코드(PHON, SFX, SYN, CASE)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주범주는 상호 배타적으로 설정되었으며, 각 오류 사례는 하나의 주범주에만 귀속된다. 보조 코드는 주범주와는 구분되는 분석 층위에서 적용되는 기술적 지표로, 개별 사례를 다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병기되었다.

3.3. 분석 항목의 세부 기준

앞서 제시한 분석 절차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과거 시제 오류를 판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자료 처리 원칙을 제시한다. 오류 분류의 핵심 기준은 형태적 축약 규칙의 적용 여부와 음운 변동 양상, 그리고 시제·조사와 같은 통사적 요소의 결합 방식에 두었다. 특히 표준 과거형 ‘했-’과 ‘봤-’의 축약형이 비표준적으로 실현되는 ‘했-’ 및 ‘봤-’ 계열 오류는, 축약 규칙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 재구성 양상에 주목하여 유형을 판정하였다.

형태적 오류는 ‘어간 + 선어말어미’ 결합이 목표어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예를 들어 ‘하다 → 했-’, ‘보다 → 봤-’과 같은 축약형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변형이 표준 규범과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음운적 오류는 축약, 연음, 자음 동화 등 주요 음운 변동 규칙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통사적 오류는 시간 부사어·시제 형태소·조사와의 결합 관계에서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였다. 이를 통해 단일 어형의 표기 일탈에 머무르지 않고, 형태·음운·통사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오류가 나타나는 문법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오류가 출현한 활용 맥락을 종결형, 연결형, 관형형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특정 오류가 특정 문장 환경에 집중되어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적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자료 전처리 과정에서는 자동 분석 프로그램의 산출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연구자가 원자료를 직접 판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자동 형태소 분석기는 비표준 철자 환경에서 분절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조적 참고 자료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최종 오류 판정은 학습자가 실제로 산출한 표층형, 담화 맥락, 형태·음운·통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오류 변이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각 오류 사례에 텍스트 유형(과제/평가/수업 활동), 작성 시기, 시간 제약 여부 등의 메타데이터를 부여하였다. 이후 전처리 과정에서 중복 문장, 이모티콘이나 비언어적 기호 등 언어적 해석이 불가능한 요소, 그리고 과거 시제 실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이러한 활용 환경 정보와 메타 데이터는 오류 사례의 맥락을 기록하고 해석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며,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이 축약형 오류의 유형과 양상 기술에 있었던 만큼 활용 환경별 통계 분석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4.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방안

본 연구는 오류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 1차 교실 자료는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작성된 학습자 8명의 텍스트 32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산출 양상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교정 이전의 원형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자료 구성은 양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제 학습 상황에서 산출되는 과거 시제 오류의 질적 양상과 생성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오류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연구자와 한국어교육학 박사 1인이 독립적으로 코딩에 참여하였다. 두 분석자는 사전에 합의된 코드 정의와 판정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텍스트를 개별적으로 판독하였으며, 코딩 단위는 본 연구에서 확정한 오류 사례(토큰)로 설정하였다. 각 사례에는 주범주 코드(HAT/BOT/기타)를 우선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 코드(PHON/SFX/SYN/CASE)를 병기하여 오류의 형태·음운·통사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기타’는 본 연구의 핵심 분석 대상인 축약형 오류 이외에 관찰된 비축약형 과거 시제 오류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분석자 간 일치도는 두 분석자의 주범주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Cohen's Kappa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Kappa 값은 0.89로 나타났으며, 이는 Landis와 Koch(1977)의 해석 기준에 따라 ‘almost perfect’ 수준의 합의로 평가된다. 불일치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 협의를 통해 판정 기준을 재확인하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코드북의 조작적 정의와 적용 원칙을 다시 점검함으로써 분석의 일관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오류 분석자 간 판단 일치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오류 분석자 간 판단 일치 현황

항목	수치
전체 오류 수	53건
일치 건수	48건 (일치율: 90.6%)
불일치 건수	5건 (불일치율: 9.4%)
Cohen's Kappa	0.89

또한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 준거와 코드 체계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어 과거 시제 교육 및 오류 분석 논의를 토대로 구성하되, 본 연구 자료에서 실제로 관찰된 산출 양상에 따라 보완·정교화하였다. 자동 형태소 분석 도구는 비표준 철자 환경에서 분절 오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조적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였고, 최종 오류 판정은 연구자가 원자료를 직접 판독하여 형태·음운·통사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오류 분석의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사례에는 텍스트 유형(과제/평가/수업 활동), 시간 제약 여부, 작성 환경 등의 메타데이터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제한된 규모의 교실 자료라는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오류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4. 오류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3장에서 확정한 분석 절차에 따라 교실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미안마 출신 초급 학습자의 과거 시제 오류 양상을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분석 자료는 2025년 봄·여름학기 부산 소재 Y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 초급 1급 과정에서 동일 교육 맥락 하에 산출된 교정 전 쓰기 텍스트이며, 본 연구는 해당 자료에 동일한 형태 기반 오류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오류의 유형적 특성과 반복 양상을 검토하였다. 특히 표준 과거형 '했다/했습니다', '봤다/봤습니다'가 '했-', '봤-' 계열로 표기되는 축약형 오류에 분석의

초점을 두되, 해당 오류가 전체 과거 시제 오류 체계 속에서 어떤 비중과 특성을 갖는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해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4.1. 오류 유형별 분석

분석 자료는 모두 교사가 사전에 수정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원형 자료이며, 과제 주제가 ‘나의 하루’, ‘지난 주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등 과거 시제 사용이 요구되는 담화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거 시제 형태의 실제 산출 양상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자료 환경을 제공하였다.

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습자 8명 중 6명(75.0%)에게서 과거 시제 관련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총 53건의 오류 사례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오류를 과거 시제 형태와의 구조적 관계를 기준으로 네 개의 주범주, 즉 ① 축약형 오류, ② 불규칙 활용 오인, ③ 형태소 누락 오류, ④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축약형 오류가 21건(39.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단일 유형 기준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오류로 확인되었다. 오류 유형별 분포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미얀마어 모어 학습자 오류 유형별 빈도²⁴⁾

오류 유형	빈도(건)	전체 오류 대비 비율
축약형 오류	21	39.6%
불규칙 활용 오류	8	15.1%
형태소 누락 오류	5	9.4%
기타 오류	19	35.8%
합계	53	100%

24) 본 표의 비율은 전체 오류 53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다. 빈도 집계는 형태적 주범주를 기준으로 수행되었으며, PHON, SFX, SYN, CASE와 같은 보조 코드는 분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HAT 및 BOT과 같은 축약형 오류 범주는 표준형이 실현되어야 할 환경에서 나타난 형태적 결과를 기준으로 설정된 주범주이며, PHON은 동일 오류 내에서 관찰되는 음운 기반 표기 특성을 보조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지표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본 표의 빈도는 오류의 표면적 형태 분포를 중심으로 산출된 것이다.

여기서 기타 오류에는 조사 결합 오류, 시제 형태 혼동, 어간 형태 변이 등 축약형 과거 시제 오류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비축약형 과거 시제 관련 오류가 포함된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이 ‘했-/뵈-’ 계열 축약형 오류의 유형과 발달적 성격을 밝히는 데 있었으므로, 기타 오류의 세부 유형 분석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표 5〉의 분포는 과거 시제 오류 가운데 축약 규칙과 관련된 형태가 학습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목적은 특정 오류 유형의 발생 원인을 단정하는 데 있기 보다는, 교실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오류의 형태적 특징과 산출 양상을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후 분석에서는 전체 오류 체계 속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축약형 오류에 주목하고, 그 내부에서 반복성과 전형성이 두드러진 ‘했-’ 및 ‘뵈-’ 계열을 중심으로 생성 양상과 발달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학습자별 성취도와 오류 출현 양상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기말 쓰기 평가 총점을 정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미얀마 모어 학습자의 쓰기 성취도와 축약형 오류 분포²⁵⁾

학습자	총점 (100점)	‘했-’ 오류	‘뵈-’ 오류	합계
순 口.	96.2	1	0	1
프 ㅅ.	93.8	2	0	2
에 ㅅ.	93.7	0	0	0
빠 ㅅ.	92.7	1	0	1
아용 ㅎ.	91	4	2	6
툰 윈 ㄷ.	88.6	3	2	5
땃 ㅅ.	76.2	2	1	3
나 ㅅ.	38.7	2	1	3
합계		15	6	21

25) 학습자는 중간·기말 쓰기 총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이름은 일부 익

〈표 6〉은 미얀마 국적 학습자의 중간·기말 쓰기 총점을 기준으로 성취 수준의 상대적 분포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림차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표에서 확인되었듯이, 다수의 학습자가 중·상위권 점수대에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인 쓰기 성취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다만 일부 학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 점수도 관찰되는데, 이는 개인별 출결, 과제 수행 정도, 시험 응시 조건 등의 차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수 차이를 오류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해석하기보다, 학습자별 산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비교적 높은 성취 수준을 보인 일부 학습자들에게서도 과거 시제 축약형 오류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순 ㅁ., 프 ㅅ., 빠 ㅅ.과 같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학습자에게서도 ‘했-’ 계열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아옹 ㅎ.와 툰 윈 ㄷ.의 경우에도 축약형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축약형 오류가 특정 성취 수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일 학습자 내에서 표준형과 오류형이 함께 나타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혼용 양상은 과거 시제 형태가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학습자 내부에서 관련 규칙이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논의되는 중간언어 개념과도 관련지어 이해될 수 있으나, 본 절에서는 자료에서 관찰된 산출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²⁶⁾

한편 이러한 오류 양상은 학습자의 개인차나 학습 태도의 문제로만 설명

명 처리하였다. 또한 ‘했-’ 및 ‘뵈-’ 오류는 축약형 과거 시제 환경에서 관찰된 대표 오류 유형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본 표는 학습자 성취도와 오류 출현 양상의 관계를 참고 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자료이며, 통계적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6) Selinker, 앞의 글, 209~231쪽; 연준홍,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 과정 중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71,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3, 95~122쪽.

되기보다는, 한국어와 미얀마어 간 시제 개념화 방식의 구조적 차이와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어는 한국어와 달리 시제를 형태적으로 굴절시키는 방식보다 담화 맥락이나 부사적 요소를 통해 시간 개념을 표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시제 범주 역시 한국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절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학습자는 과거 시제의 형태적 결합 규칙을 개념적으로 충분히 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기 및 실현을 시도하게 되며, 그 결과 축약형 환경에서 불안정한 형태 선택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²⁷⁾

또한 한국어 종성 체계와 미얀마어 음운 체계의 상이성은 과거 시제 축약형 오류의 음운적 처리 전략과도 연결된다. 한국어 과거 시제는 축약 과정에서 음운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경음화 및 종성 표기 규칙이 작동하는 반면, 미얀마어는 종성 음운 조합 방식이 한국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음운 체계의 차이는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을 청각적으로 지각하고 문자로 표기할 때 선택하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 '했-'과 '봣-'과 같은 비표준형 산출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인다.²⁸⁾

이러한 개념적·구조적 배경을 고려할 때, 축약형 오류 21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했다/했습니다'와 '봣다/봣습니다'의 표준 과거형이 각각 '했-', '봣-' 계열로 표기된 사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약형 오류 가운데 반복성과 전형성이 가장 두드러진 '했-'과 '봣-' 계열을 대표 오류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했습니다/하셨습니다', '했다/하다', '했어요/했어요'와 같은 오류는 '하- + -았- → 하았- → 했-'으로 이어지는 표준 축약 규칙이 학습자의 표기 처리 과정에서 비표준 형태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오류는 중간·기말 평가, 단원 평가, 수업 중 쓰기 활동 등 다양한 과제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주요 오류 예시는 <표 7>과 같다.

27) 판다린, 앞의 글, 498~522쪽.

28) 레이레이몬·한승규, 앞의 글, 51~77쪽.

〈표 7〉 미안마어 모어 학습자의 시제 오류 사례와 가능한 해석²⁹⁾

오류 유형	오류 문장 (출처)	표준형 변환	가능한 해석
'했-' 계열	저는 어제 숙제를 했습니다. (2025 봄학기 기말 쓰기 평가, 학습자 프 오.)	했습니다	축약형 처리의 불안정 가능성
'했-' 계열	일 끝나고 집에 했어요. (2025 봄학기 중간 쓰기 평가, 학습자 텃 오.)	했어요	발음 단서 반영 가능성
'했-' 계열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나서 요리를 했습니다. (2025 여름학기 단원평가, 학습자 아웅ㅎ.)	했습니다	형태 재구성의 불안정 가능성
'봤-' 계열	주말에 영화를 봤습니다. (2025 여름학기 단원평가, 학습자 아웅ㅎ.)	봤습니다	축약형 재구성 과정의 불안정 가능성
'봤-' 계열	어제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봤어요. (2025 여름학기 수업 쓰기, 학습자 툰 윈 디.)	봤어요	발음 단서 반영 가능성

또한 개별 학습자 단위에서도 오류의 지속·누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아웅ㅎ.와 툰 윈 디.은 중간·기말 평가 및 단원 평가에서 각각 6회, 5회에 걸쳐 동일 계열의 축약형 오류를 반복적으로 산출하였다. 이는 단발적 실수라기보다 비표준형 규칙이 일정 부분 안정화된 중간언어적 체계로 형성되고 있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은 교실 쓰기 산출물에 근거하므로, 오류 생성 과정에 대한 논의는 실제 인지 과정을 직접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 관찰된 표기 양상을 토대로 한 해석적 수준에서 제시된다.

29) 실제 쓰기 자료에서 확인된 대표 오류 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설명은 오류 생성의 직접적인 원인을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실 자료에서 관찰된 표기 양상을 토대로 고려할 수 있는 해석적 가능성을 정리한 것이다.

4.2. 축약형 오류의 생성 경로와 해석

분석 결과, 미안마어 모어 학습자의 과거 시제 오류 가운데 축약형 오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내부에서는 ‘했-’ 및 ‘봣-’ 계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오류는 표면적으로는 철자 일탈로 보일 수 있으나, 앞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축약 규칙의 단계적 내면화 과정과 발음-표기 불일치 처리 부담이 결합될 때 산출될 가능성이 높은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본 절에서는 특정 오류의 발생 원인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 교실 쓰기 자료에서 관찰된 표기 형태가 어떤 경로로 생성될 수 있는지를 형태·음운적 관점에서 해석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먼저 ‘했습니다/했어요’ 유형은 표준 축약 경로(하- + -았/었- → 하였- → 했-)가 학습자 내부 체계에서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된 표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손 종결형 ‘했습니다’의 음성적 실현이 강하게 지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받침 ‘ㅍ’ 표기가 단순히 경음화 현상의 직접적 반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표기는 고빈도 표준형에 대한 형태적 인상을 기반으로 기존에 습득된 형태를 참조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유추적 산출의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오류는 음성 지각, 형태 인식, 축약 규칙의 미안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 텍스트 내에서 표준형과 비표준형이 혼용되는 양상은, 축약 규칙이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봣습니다/봣어요’ 유형은 보- + -았- → 보았- → 봤-으로 이어지는 축약 과정에서 이중모음 ㅂ(ㅂ+ㅂ)의 형성 단계가 충분히 지각·분석되지 못한 상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음성 환경에서 ‘봣다’가 [봣따]와 같이 경음화된 음성으로 실현될 때, 학습자는 이중모음 결합을 재구성하기보다 ‘보 + ㅍ’과 같은 단순화된 음운 기반 표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 역시 특정 음운 과정으로 오류 발생을 확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쓰기 자료에서 관찰되는 표기 양상을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해석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봣-’ 형태는 이중모음 결합이 완전

히 소실된 결과라기보다, 이중모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받침 ‘ㅍ’이 과잉 첨가된 표기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그 결과 ‘했-’은 경계 음운의 과지각이, ‘봣-’은 모음 결합 구조의 불안정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중심 요인으로 작동하는 상이한 경로를 가질 수 있으나, 두 오류 모두 발음 단서를 문자 표기에 직접 대응시키려는 초기 표기 처리 전략과 일정한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오류 빈도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결과라기보다, 관찰된 산출 양상을 토대로 한 해석적 설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량적 비교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생성 경로는 <표 8>과 같다.

<표 8> 미얀마어 모어 학습자의 ‘했-/봣-’ 오류에 대한 해석 가능 경로 비교

유형	한국어 표준 형태 형성 경로	음운적 단서	학습자 처리 전략	미얀마어 대비 특성
‘했-’ 계열	하 + 앓 → 하앓 → 했- (모음 결합 + 축약)	‘했습니다’의 음성 실현에서 종성 ‘ㅍ’ 지각될 수 있음	발음 단서를 문자 표기에 직접 대응시키는 전략이 작동하면서 비표준 표기가 산출될 가능성	미얀마어는 동사 어간 변형이나 축약 규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봣-’ 계열	보 + 앓 → 보앓 → 봤- (축약형 형성)	과거 시제 종성 ‘ㅍ’의 지각될 수 있음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요소로 인식된 ‘ㅍ’이 표기 과정에서 과잉 첨가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가능성	미얀마어는 모음 결합 기반 축약 규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요컨대, ‘했-’과 ‘봣-’ 유형은 각각 축약 경로의 단계적 재구성 실패와 지각적 단서의 과잉 반영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교실 쓰기 자료에서 관찰된 표기 양상을 중심으로 제시한 분석적 설명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두 오류 모두 발음 단서를 철자에 직접 대응시키려는 초기 표기 전략과 일정한 접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3장에서 설정한 ‘축약형 오류(형태적 주범주) + 음운 기반 표기(보조 코

드)라는 분석 틀과도 정합적으로 대응된다.

4.3. ‘했-/뵈-’ 계열 오류의 발달적 지위와 중간언어 성격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미안마어 모어 초급 학습자의 과거 시제 오류는 단순한 철자 실수나 규칙 미숙에만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운 양상을 보였다. 특히 ‘했-/뵈-’ 계열 오류는 동일 학습자 내에서 과제 유형과 평가 시점을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일부 학습자에게서는 동일 텍스트 안에서 표준형과 비표준형이 혼용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오류를 우연적 산출로 환원하기보다, 학습자의 중간언어 체계 안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는 산출로 해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먼저 학습자의 전반적 성취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 다수는 중간·기말 쓰기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문장 구성 및 어휘 선택 측면에서도 초급 수준에서 요구되는 수행을 안정적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과거 시제 축약형에서 동일 유형의 비표준 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해당 오류가 전반적 언어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 특정 형태·음운 결합 환경에서 발생하는 국소적 불안정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오류의 지속성 자체가 낮은 성취도의 직접적 지표라기보다 형태소 결합 규칙의 내면화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발달 단계의 특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했-/뵈-’ 계열 오류는 단일 어휘의 불규칙 활용을 오인한 결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하다’, ‘보다’와 같은 고빈도 동사에서 나타난 오류는 종결형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부 사례에서는 연결형이나 관형형 등 다른 활용 환경으로도 이어지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특정 형태의 암기 실패라기보다 어간 중심의 비표준 규칙이 학습자 내부 체계에서 일정 부분 생산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오류형이 활용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 학습자는 표준 축약 경로 대신 자신이 구성한 형태적 규칙을 바탕으로 어형을 재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오류 양상은 중간언어 관점에서 보다 설득력 있게 해석될 수 있다. 학습자는 입력으로 제공되는 표준형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청각적으로 지

각된 음성 정보를 토대로 형태를 재구성하는 처리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어 과거 시제 축약형은 발음과 표기 간 괴리가 크고, 경음화 등 음운 변동까지 결합되는 환경이므로, 학습자의 주의를 형태소 결합 구조보다 발음 단서에 집중되기 쉽다. 그 결과 발음 단서를 문자 표기에 직접 대응시키는 전략이 강화되면서 ‘했-’, ‘봣-’과 같은 비표준형이 반복적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교실 쓰기 자료에서 관찰된 표기 양상을 토대로 한 분석적 설명의 범위에서 제시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오류가 무질서한 산출이 아니라, 학습자 내부에서 일정한 일관성을 갖고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동일 학습자에게서 동일 계열의 오류가 반복되고, 표준형과 오류형이 혼용되는 양상은 규칙 내면화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를 반영한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은 초급 단계 학습자이며 학습 기간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해당 오류를 곧바로 화석화된 오류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오히려 명시적 피드백, 축약 경로의 단계적 제시, 발음과 표기의 병렬 제시 등 교수적 개입이 제공될 경우 수정 가능성이 높은 발달 단계의 산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하면, 미얀마 출신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했-/봣-’ 계열 과거 시제 오류는 단순 철자 오류나 불규칙 활용 미숙의 결과가 아니라, 발음 단서에 기반한 형태 재구성 전략, 축약 경로의 단계적 내면화 지연, 그리고 중간언어 체계의 발달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미얀마어를 모어로 하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과거 시제 표현 오류를 동일한 교육 맥락에서 산출된 교실 쓰기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축약형 오류가 어떠한 형태·음운적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교적 높은 성취 수준을 보인 일부 학습자에게서도 ‘했-/봣-’ 계열과 같은 비표준형 과거 시제 표기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오류를 단순한 철자 실수나 규

칙 미숙으로 환원하기보다 발달적·구조적 요인이 결합된 산출 양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25년 봄·여름학기 부산 소재 Y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초급 1급 과정에 재학 중인 미안마 국적 학습자 8명이 작성한 교정 전 쓰기 텍스트 32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자료는 동일한 교재, 동일한 교수자, 동일한 과제 조건에서 산출된 것으로, 과거 시제 사용이 요구되는 담화 환경에서 수집된 교실 기반 자료이다. 분석 결과, 과거 시제 관련 오류는 총 53건 확인되었으며, 그중 축약형 오류가 21건(39.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표준 과거형 ‘했다/했습니다’, ‘봤다/봤습니다’가 각각 ‘했-’, ‘봣-’ 계열로 표기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이러한 오류는 동일 학습자 내에서 과제 유형과 평가 시점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오류 유형별 분석 결과, ‘했-/봣-’ 계열 오류는 단일 어휘의 불규칙 활용을 오인한 결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나타냈다. 해당 오류는 종결형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부 사례에서는 연결형이나 관형형 등 다른 활용 환경에서도 관찰되었으며, 동일 텍스트 내에서 표준형과 오류형이 혼용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표준 축약 규칙을 안정적으로 내면화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음 단서에 근거하여 형태를 재구성하는 처리 전략을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해당 오류는 우연적 산출이라기보다 학습자 내부에서 일정한 일관성을 갖고 작동하는 규칙화 과정의 한 양상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구조적 분석을 종합하면, ‘했-’ 계열 오류는 공손 종결형 ‘했습니다’의 실제 발음([헨씀니다])에서 지각되는 음성 단서가 형태소 경계의 재분절과 결합하면서 표기 단계에서 중성 ‘ㅁ’이 과잉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관찰된 자료에 근거한 설명의 범위에서 제시된 것이다. 한편 ‘봣-’ 계열 오류는 ‘보- + -았- → 보았- → 봤-’으로 이어지는 축약형 형성 과정에서 과거 시제를 표지하는 요소로 인식된 중성 ‘ㅁ’이 표기 단계에서 과잉 첨가되며 나타난 비표준형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관찰된 표기 양상을 바탕으로 한 분석적 설명으로서, 오류 생성 과정을 직접적으로 검

증한 결과라기보다 가능한 해석 가운데 하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오류 양상은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언어의 관점에서 비교적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다. 학습자는 목표어의 표준 규범을 단순히 모방하기보다 입력으로 지각된 음성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인 규칙을 구성하고 이를 산출에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했-/봘-’ 계열 오류 역시 무질서한 산출이라기보다 학습자 내부 체계에서 일정한 일관성을 지닌 규칙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규칙 내면화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과도기적 발달 단계의 특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초급 단계 학습자이며 학습 기간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류를 화석화된 오류로 단정하기보다는 적절한 교수적 개입을 통해 수정 가능한 발달 단계의 산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과거 시제 오류를 개별 어형의 정확성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교실 자료를 바탕으로 축약 경로의 단계적 재구성과 발음 기반 처리 전략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오류 유형 분류 중심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실제 산출 양상을 보완적으로 제시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과거 시제 축약형처럼 발음과 표기의 괴리가 큰 어형의 경우 결과 형만을 제시하기보다 ‘하- + -았- → 하았- → 했-’, ‘보- + -았- → 보았- → 봤-’과 같은 형태론적 결합 경로를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제시는 학습자가 축약 규칙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발음과 표기 간 차이를 함께 제시하는 지도 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실제 발음 예시와 표준 표기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발음 단서에만 의존하여 표기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반복되는 오류를 단순한 실수로 간주하기보다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규칙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동일 텍스트 내 표준형과 오류형의 혼용 여부나 자기 수정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자가 실제로 산출한 오류 사례를 활용하여 표준형과 비표준형을 비교·재구성하는 활동을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형태적 결합 구조와 축약 경로를 능동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규모의 교실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오류 분석을 위한 코드 체계와 적용 기준을 본문에서 제시하였으나, 각 코드의 포함·배제 기준이나 경계 사례 처리 원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상세 코드북 수준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분석 절차의 재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코드북 구축을 통해 분석 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말하기 자료 등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포함하여 발음 단서와 표기 전략의 상호작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종단적 자료를 통해 '했-/뵈-' 계열 오류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논저

- 국립국어원, 『표준 발음법 해설서』, 국립국어원, 2017.
- _____, 『표준 한국어 문법론』, 국립국어원, 2021.
- 판다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시제에 대한 개념 비교 연구」, 『나라사랑』 129, 외솔회, 2020.
- 레이레이몬·한승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종성 발음 대조 연구」, 『언어과학 연구』 92, 언어과학회, 2020.
- 신찬양,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및 높임법 사용의 문법적 오류 분석 연구」, 『언어와 언어학』 89,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20.
- 연준흠,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 과정 중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71,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3.
- 원윤희, 「독일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사례연구」,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0.
- 이선진·임우열·김영주,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과거시제선어말어미 결합 용언 처리에 대한 점화 실험 연구」, 『새국어교육』 122, 한국국어교육학회, 2020.
- 이정희,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오류 연구」, 『이중언어학』 18, 이중언어학회, 2001.
- 이혜영·이임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불규칙 용언의 위계화 연구」, 『언어와 문화』 9(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3.
- 지혜영·김영주,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 나타난 격조사 오류 연구」, 『국어교육연구』 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3.
- 차재은, 「한·미얀마어의 음절 구조와 제약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68, 한민족문화학회, 2019.
- 킨뚜자·김보미·권성미,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와 미얀마어 자음 대조 연구」,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화회, 2015.
- 허 용,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음운현상

- 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 Bradley, D., “Burmese”, in G. Thurgood & R. J. LaPolta (eds.), *The Sino-Tibetan Languag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2, pp.90~115.
- Corder, S. P.,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Vol.5, No.1-4, 1967, pp.161~170.
- Dulay, H., Burt, M., & Krashen, S., *Language Tw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Jenny, M., & Hnin Tun, S. S., *Burmese: A Comprehensive Grammar*, London: Routledge, 2016.
- Lado, R.,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 Landis, J. R., & Koch, G. G.,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Vol.33, No.1, 1977, pp.159~174.
- Odlin, T., *Language Transfer: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Rooney, J., “Burmese”, in M. Aronoff (ed.),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1~20.
- Schmidt, R., “The Role of Consciousnes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Vol.11, No.2, 1990, pp.129~158.
- Selinker, L.,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Vol.10, No.1-4, 1972, pp.209~231.

2. 기타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년 11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세종: 법무부, 2023.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

(검색일: 2026.01.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년 11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세종: 법무부, 2025.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7/601757/artclView.do>

(검색일:2026.01.10.)

<Abstract>

An Analysis of Contracted Past Tense Error Patterns in *hada* and *boda* Produced by Burmese-speaking Beginner Learners of Korean

Park, Yun-Mi · Won, Yun-Hee

This study examines patterns of past tense errors produced by beginning-level Korean language learners whose first language is Myanmar,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non-standard forms “했-” and “뵈-” that occur in contracted past tense constructions of the verbs *hada* (“to do”) and *boda* (“to see”). The data consist of 32 written texts collected from classroom writing tasks in a beginner-level Korean course at a university-affiliated language institute in Busan, involving eight Myanmar learners who were instructed under the same curriculum and learning conditions.

A total of 53 past tense errors were identified, among which contracted form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21 cases). Within this category, the non-standard forms “했-” and “뵈-” were consistently observed across midterm and final assessments, unit tests, and regular classroom activities. Notably, these error patterns were also found among learners with relatively high levels of writing proficiency, indicating that they cannot be reduced to simple orthographic mistake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se errors are better understood as developmental phenomena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of phonologically driven spelling strategies, unstable recognition of morpheme boundaries, and incomplete internalization of contraction rules. In addition, the coexistence of standard and non-standard forms within individual learners’ outputs indicates that the relevant grammatical rules have not yet been fully stabilized in their interlanguage systems.

Based on authentic classroom data, this study provides a detailed account of contracted past tense errors among Myanmar learners and offer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teaching Korean past tense forms, particularly high-frequency verbs, at the beginner level.

* Key Words: Burmese L1 learners of Korean, past tense errors, contracted forms, interlanguage, Korean language education

· 논문투고일: 2026년 1월 21일 · 심사완료일: 2026년 3월 26일 · 게재결정일: 2026년 3월 27일